



3면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포함 국가전략 전환을"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음 10월 30일) 제388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권역 하나로... 지역간 연결도로 착공

군산서 건설공사 기공식
국도 30호선~12호선 연결
총사업비 1조1330억 투입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
새만금 정체성·주변 경관
반영한 특화 설계로 조성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 참석자들이 지역간 연결도로 착공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새만금 주요 개발권역을 하나로 잇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운덕 국토교통부장관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착공의 의미를 함께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에서 출발해 관광·레저, 농생명, 복합개발 등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을 관통한 뒤 국도 12호선(동서2축)으로 연결되는 핵심 간선도로다.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1조 1,33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간접

자본(SOC) 사업이다. 이 도로는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내부 도로망을 구축해, 이미 개통·운영 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새만금 내부 권역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도록 설계돼 물류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새만금 전체 접근성은 5.9% 향상되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은 23.6%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및 관광·레저 용지, 교통·문화 시설 간 이동시간도 평균 31~3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 기간 동안 취업가 인프라이와 연계되도록 설계돼 물류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레저 용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7만명의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

금의 정체성과 주변 경관을 반영한 특화 설계로 조성된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 주탑(직경 55m)을 갖춘 사장교가 랜드마크 교량 시설 간 이동시간도 평균 31~35%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양을 형상화한 아치교와 나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돼 도로 자체가 새로운 관광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청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공정 관리와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착공은 새만금의 공간과 기능을 하나로 엮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현재 "위험 위법한 지시 따라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 인정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험 위법한 지시에 따라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사유를 밝혔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현재는 또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파견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현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은)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계엄 포고령에 따른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에 따라 국회를 통제하고 권한 행사 방해해 해제요건의 의결이 지연됐다"며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임무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했다. /뉴시스

"무엇보다 중요한건 안전... 비합리적 부분 당 차원에서 해결" | 민주당 의원, 전주기자촌재개발아파트 현장을 찾아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8일 오전 도내 최대 규모의 포스코이앤씨 전주기자촌재개발아파트 현장을 찾아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포스코이앤씨 전주기자촌재개발아파트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내 최대 2,226세대 규모의 재개발 현장인 만큼 입주자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고품질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며 "올해 화두는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사망사고 없는 무재해·무사고 현장으로 거듭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장은 "현재까지 기자촌과 갈나무골,

에코시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는 물론 단 한차례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포스코이앤씨에서 개발한 스마트 세이프티 공정을 적용,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들이

서로 인식했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는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건설업계에 너무나 가혹한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리적 준용이 필요하다"며 "기업차원에서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건설업계차원에서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합리적인 상식

선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고려돼 차후 정청래 대표에게 건의해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건설업체 차원에서 하도급과 같은 의무비율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이를 반영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 의원은 전주시 팔복동 부녀회 모임에 참석해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애환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기업유치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일 오후 4시 익산시 신흥동 원광대학교 프라임관에서 원광대 민주동문회 주관으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대가수 이정석, 안전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전북의 슬로건과 '함께한 민주, 함께할 이원택'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올림픽 후보도시 전주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세요!

대한체육회
전북전주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희망
대한장애인체육회